

한국 공동체의식 검사*

정진경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사회내의 공동체적 정체감을 분석하여 그 구성요인을 탐색하고, 그를 기반으로 하여 공동체의식을 측정하는 검사를 개발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공동체의식의 개념을 정립하고 검사 문항이 측정하여야 할 정확한 분야를 설정하기 위해서 공동체주의 철학에 대한 논의, 공동체의식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공동체의 성격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결과들을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식이 집단주의와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였다. 연구 1에서는 한국 사회의 공동체의식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그를 기반으로 공동체의식 검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헌조사에 기초하여 많은 수의 예비 문항을 작성하여 시행한 후(N=269), 문항-총점간 상관계수와 요인분석을 통하여 문항분석을 실시하여 적절한 문항들을 선정하고 검사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들을 밝혀내었다. 24문항으로 구성된 공동체의식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92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위에서 작성한 '한국 공동체의식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밝혀진 바람직한 공동체인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부모들과 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단체이지만 공동체의식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 어린이집의 부모들을 비교해 본 결과(N=352),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공동체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공동체의식 검사가 목표하는 바를 대체로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일차적으로 보여주었다.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대가족이나 마을 등의 전통적 공동체가 점차 사라지고,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조직에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자발적 공동체 활동에의 참여가 특징적인 생활양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공동체적인 정체감이나 공동체의식도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한국사회는 산업화의 과정을 수 십년 안에 급속히 겪어 내면서, 의식의 변화가 가족을 비롯한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많은 갈등과 혼란을 빚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내의 공동체적 정체감을 분석하여 그 구성요인을 탐색하고, 그를 기반으로 하여 공동체의식을 측정하는 검사를 개발하고 그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는 현재 한국사회의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인들을 경험적으로 밝혀낸다는 의미와 함께, 검사제작의 전과정을 거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닌 검사를 개발한다는 의미도 있다.

* 본 연구는 1997 - 1999년도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중점영역 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문화인류학, 민속학, 사회학, 심리학 등의 다양한 인문, 사회과학의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심리학의 공동체 연구는 지역사회심리학의 발달과 함께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공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도와주는 공동체로 지낼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현실적, 응용적인 관심을 지녀 왔다.

공동체의식의 개념을 정립하고 검사 문항이 측정하여야 할 정확한 분야를 설정하기 위해서 공동체주의 철학에 대한 논의, 공동체의식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공동체의 성격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검토하였다. 그 주요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Hillery(1955)는 공동체의 종류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지역적 단위를 이루는 것이고, 둘째는 상호작용의 연결망을 갖는 단체로서 상호관계나 관심을 갖는 경우이고(예: 종교, 학술 단체 등), 셋째는 문화심리적 단위로서 서로간에 동일시를 하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회적 기본 단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공동체의 본질을 구성원들이 가치와 신념 및 목표를 공유하는 '문화적 일체감'과 서로를 '우리'라고 느끼고 연대함으로써 갖게 되는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보았다.

McMillan과 Chavis(1986)는 공동체의식을 "구성원들의 소속감, 구성원들이 서로 중요하다는 느낌 또는 집단에 대하여 중요하다는 느낌, 그리고 구성원들의 요구가 자기들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충족될 것이라는 공유된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네 가지 하위개념, 즉 소속감, 상호영향, 요구의 충족, 그리고 정서적 유대로 이루어지며 이 하위개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소속감은 개인이 가지는 공동체에 대한 감정으로, 자신을 공동체의 일부로서 투여하며 그 결과로 그 공동체에 소속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다음 5가지 요소가 있다: (1) 공동체의 범위, (2) 정서적 안정성, (3) 소속감과 동일성, (4) 개인적 투여, (5) 공통적 상징

체제, 상호영향은 양방향적인 것으로 개인이 집단에 미치는 영향과 집단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요구의 충족은 공동체로부터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개인이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공동체에 대한 행동의 동기수준을 말해 준다. 정서적 유대는 개인이 소속한 공동체에 얼마나 오래 관계하였느냐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를 설명하는 하위개념들로 다음 7가지를 들 수 있다: (1) 접촉 가설, (2) 상호작용의 질, (3) 사건의 명확성, (4) 공유된 사건의 중요성, (5) 투여, (6) 공동체 구성원간의 친밀도, (7) 정신적 유대감, 이 네 가지 하위개념들은 각기 독립적인 정적 요소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네 가지 요소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 함으로써 각각의 요소가 공동체의식의 요소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각 요소의 중요도와 기능은 공동체의 특성과 구성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되는 또 하나의 이론으로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을 들 수 있다. Hui와 Triandis(1986)는 집단주의를 대인적 관심에 관련되는 감정, 정서, 신념, 관념, 및 행동들의 복합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복합은 다음 7가지 측면으로 요약된다: (1) 타인에 대한 자기자신의 결정의 효과에 대한 고려, (2) 물질적 자원에 대한 공유, (3) 덜 물질적인 자원의 공유(예: 자신에게 흥미로운 활동을 유보하기), (4) 타인의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5) 자기표현과 체면상실에 대한 염려, (6) 자신의 결과가 타인의 결과와 일치한다는 신념 (7) 타인의 생활에 대하여 투여하고 기여한다는 느낌이다.

Triandis 등(1988)은 집단주의 문화의 본질적인 속성을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어떤 집단의 목표에 종속시키도록 유도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집단은 가족이나 부족과 같은 안정된 내집단(stable ingroup)이라고 하였다. 이 내집단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긍정적인 사회적 정체감에

도움이 되는 속성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다. 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과 내집단과의 관계가 안정적이며, 내집단이 구성원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도 구성원들은 그대로 그 내집단에 남아있는 경향이 있다.

공동체의식과 집단주의는 공유하는 특성이 많은 한편, 서로 공유할 수 없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다. McIntyre(1981), Sandel(1984), Taylor(1992) 등은 공동체주의가 상대주의, 독단주의, 집단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특성들을 논의하였다. 이들의 논의에 의하면 공동체주의란 그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체의 전통이 적절치 못할 때 그를 평가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고, 구성원들이 의사소통을 하여 자기 전통의 틀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그것과 다른 틀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주의가 정체성의 기반으로 제시하는 공동체의 요소로는 개방성, 부정성, 진보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는 자기성찰과 자기수정, 활발한 의사소통, 그리고 합리성 등을 들고 있다.

한국 사회의 공동생활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로는 김혜숙, 김연진, 김완석, 나은영, 이종한, 조성을, 최진호(1997) 등의 공동생활과 삶의 질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가족 및 혈연 공동생활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나은영, 김혜숙, 1997), 지역공동생활, 모임활동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이종한, 김혜숙, 1997; 김혜숙, 최진호, 1997), 공동활동과 관련된 주관적 안녕 척도의 개발(김완석, 김영진, 1997), 공동활동 집단의 심리사회적 특징에 대한 질적, 양적 분석(이종한, 김혜숙, 김영진, 김완석, 나은영, 이선이, 조성울, 1998; 이선이, 김혜숙, 김영진, 김완석, 나은영, 이종한, 조성울, 1998) 등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공동생활 및 공동활동에 대한 심리학적 기초자료와 그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였다. 이 일련의 연구들의 목표는 바람직한 공동생활/활동의 특성, 의

식, 행동양식 등을 밝혀서 바람직한 모형을 개발하는 것에 두고 있다.

한국 사회의 공동체에 대한 논의에서 주의할 점은 한국사회가 집단주의적인 사회이고, 연고집단에 대한 몰입과 배타성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이종한(1992, 1994)은 서구사회에서 취미활동 집단이나 사회봉사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서로 독립적인 개인들이 자신의 독특한 정체감이나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에 비하여, 한국 사회에서는 친족, 학연 등의 연고집단에 소속되어 자신의 정체감이나 유대감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즉,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직에의 참여보다는 폐쇄적이고, 일차관계 중심적이고, 학연, 혈연, 지연 등의 귀속주의적 연결망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이러한 특성은 종종 집단이기주의라는 폐해를 낳는 것이다.

이기범(1997)도 공동체주의에 역행하는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적 특성들을 지적하였다. 그가 지적한 특성들은 외부에 대하여 배타성과 폐쇄성을 갖는 것, 내부적으로도 폐쇄적이며 억압적이어서 집단의 정서와 기준에 개인이 복종해야 하는 것, 동료가 하는 일이 옳던 그르던 무조건 동조하는 것, 다양성을 수용하지 않는 것,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권위주의적 사고방식 등이다. 그는 이러한 경향이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 다양한 공동체와 경쟁하고 공존할 수 있는 자기 성찰과 자기 발전의 기회 그리고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공동체주의 철학이 제시하고 있는 준거를 바탕으로 정체성의 재형성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 공동체의 고유한 상호의존의 정서와 구체적인 합리성을 존중하되 개방성, 부정성 그리고 합리적 의사 소통 능력의 배양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억압과 동질성을 향한 충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 검사가 포함해야 하

는 하위 요인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공동체의식이 집단주의와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였다. 전통적으로 집단주의가 높은 문화권이기에 때문에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공동체의식 속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 개념화하는 공동체의식은 위에 지적한 몇 가지 측면에서 집단주의와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연구 1: 검사개발

연구 1에서는 한국 사회의 공동체의식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그를 기반으로 한국 공동체의식 검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에 기초하여 많은 수의 예비 문항을 작성하여 시행한 후, 문항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문항들을 선정하고 검사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들을 제시하였다(Allen and Yen, 1979).

방법

문항 작성 및 예비 시행

예비 문항의 작성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1. 문헌 연구에서 밝혀진 공동체의식의 구성 요인들에 대하여 각 요인마다 서너 개의 문항을 작성하였다. 예를 들면, '정서적인 소속감'이라는 요인에 대하여 McMillan과 Chavis(1986)의 설명을 기반으로 하여 서너 개의 문항을 작성하고, '외부에 대한 개방성', '다양성의 수용' 등의 요인에 대해서도 관련된 문헌들의 논의를 기반으로 각각 서너 개의 문항을 작성한 것 등이다.
2. 공동체 개념과 관련이 있는 기존의 검사지들 중에서 공동체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문항들을 선별해내어 포함시켰다. 여기에 사용한 검사로는 이종한(1992)의 '공동체에 관한 설문지 (Sense of Community of Questionnaire, SCQ)'와

Florin, Rich, Wandersman, & Chavis(1990)의 '동네에 관한 설문지(Modified Sense of Community Index, MSCI)', 그리고 Triandis, Bontempo, Leung과 Hui(1990)의 '개인주의-집단주의 검사' 등이 있다.

그 결과 총 77개의 예비 문항이 작성되었다. 예비 시행에서는 이 77개의 문항을 '나의 가족'과 '내가 속한 학과'에 대하여 각각 한 번씩 실시하였다. 두 번을 실시한 이유는 하나의 특정한 공동체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요인 구조나 신뢰도, 타당도 등을 배제하고, 어떠한 공동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문항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다. 가족은 혈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구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이고, 학과는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소속된 좀 더 사회적이고 규모가 큰 공동체로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비슷한 결과를 얻는다면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을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5점 척도에 답하였다.

조사 대상자

1차로 작성된 문항의 예비시행에는 남녀 대학생 269명이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결과 및 논의: 문항분석,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인 탐색 및 검사 제작 완료

수집된 설문지의 자료에 대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검사총점간 상관 계수를 이용한 문항분석은 그 문항에 대한 반응과 다른 문항들에 대한 반응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검사 총점이 높은 피험자가 낮은 피험자보다 그 문항에 얼마만큼의 정답을 했는가의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의 자료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항-검사총점간 상관 계수의 전체 범위는 .03에서 .73으로 나타났으며, 반수 이상의 문항이

.5에서 .8 사이의 범위에 들어가 있었다. 문항-검사 총점간 상관 계수가 .3이하인 문항들은 1차 선별해 두었다가, 다음에 제시하는 요인 분석 결과에서도 주요 요인에 부하가 높지 않은 경우 완성된 검사에서는 삭제하였다.

다음에는 요인 분석을 이용한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은 일련의 문항들의 동질성 여부, 즉, 일련의 문항들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결정하고 그 요인들에 묶이는 동질적인 문항을 선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요인 분석을 몇 가지로 실시한 결과, 6개의 주요 요인으로 묶이는 위의 분석 결과가 공동체의식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을 가장 잘 드러내 주었다.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이 요인들은 친밀성과 소속감, 조화와 단결, 동일시와 공과의 공유 등, 공동체의식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과 공통점을 지니는 측면이 있는 한편, 자발적 참여 및 의사표현, 자율성과 공공의식, 권위적, 배타적 집단주의와의 구분 등, 시민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자발적, 민주적 공동체의 특징을 드러내는 측면도 있다. 이 결과는 현재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식의 하부구조를 드러내었다는 점, 그리고 그 구조가 본 연구에서 추구하고자 한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에 대한 측정과 탐색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학과’와 ‘가족’에 대한 분석은 비슷한 요인 구조를 보여서, 이 요인 구조가 대상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하의 분석에서는 ‘학과’에 대한 결과를 일률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6개의 각 요인마다 요인 부하량이 높고 다른 문항들과 더불어 같은 하위개념으로 무리 없이 묶여지는 문항들을 4개씩 선택하여 24문항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의식 검사를 완성하였다. 검사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 6개와 각각에 속한 문항이 아래에 제시되어 있고, 요인분석의 결과가 다음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들의 구성을 보면 위에서 논의

한 공동체의식의 여러 이론적 측면들과 합치하는 점이 많아 어느 정도의 구인타당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요인 1. 친밀성과 소속감

1. 나는 그 집단 속에서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느낀다.
7. 나는 그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13. 그 집단의 구성원들과 친밀감을 느낀다.
19. 나는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요인 2. 조화와 단결

2. 그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8. 나의 행동이 그 집단에 해가 된다면 기꺼이 나의 행동을 고친다.
14.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그 집단을 발전시킬 수 있다.
20. 그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행동은 조심한다.

요인 3. 자발적 참여 및 의사 표현

3. 그 집단에서 갖는 모임은 꼭 참석한다.
9. 그 집단의 일에는 자발적으로 협동한다.
15.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할 때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21. 그 집단의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요인 4. 동일시와 공과의 공유

4. 그들이 저지른 잘못이 마치 나의 책임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
10. 그들이 잘 하면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기쁘다.
16. 나를 희생할지라도 그 집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2. 그들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내 일처럼 돕는다.

- 요인 5. 자율성과 공공의식
5. 우리의 공공 기물을 내 것처럼 소중히 다룬다.
11. 그 집단의 규율을 남이 보지 않아도 스스로 지킨다.
17. 그 집단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
23. 나는 그 집단에서 나의 일을 스스로 해나간다.
- 요인 6. 권위적, 배타적 집단주의
6. 그 집단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면 옳건 그르건 편을 들어준다.
12. 그 집단이 아닌 사람은 믿기 어렵다.
18. 그 집단의 결정에 나는 무조건 따른다.
24. 연장자와 의견이 다를 때 그의 의견을 그대로 따른다.

표 1. 예비시행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친밀성과 소속감	요인 2 조화와 단결	요인 3 자발적참여 의사표현	요인 4 동일시와 공과공유	요인 5 자율성과 공공의식	요인 6 권위적 집단주의
친밀감	.691					
일체감	.621					
더불어 함께 삶	.554					
소속감	.545					
사이좋게 지냄		.637				
모두 힘 합쳐야 집단발전		.562				
싫어할 행동 조심		.515				
집단 위해 나의 행동 고침		.510				
활동에 자발적 참여			.717			
집단의 일에 자발적 협동			.586			
모임 꼭 참석			.559			
결정 때 내 생각 자유표현			.432			
나를 희생 집단 위해 최선				.507		
잘 하면 내 일처럼 기쁨				.503		
어려우면 내 일처럼 도움				.478		
잘못 나의 책임인 듯 느낌				.451		
공공기물 소중히 다룸					.568	
나의 일 스스로 함					.500	
집단의 규율 스스로 지킴					.439	
주인의식 가지고 있음					.415	
집단의 결정에 무조건 따름						.596
연장자 의견 그대로 따름						.577
옳건 그르건 편 들어줌						.494
그 집단 아니면 믿지 않음						.415

N=269

전체 72 문항 중, 검사에 채택한 24개 문항의 결과만 제시하였다. 위에서 논의했듯이 문항 - 총점 간 상관계수가 높고, 주로 속한 요인에 높은 부하량을 보인 문항들이다.

위의 24문항으로 구성된 한국 공동체의식 검사
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92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문항의 검사총점과의 상관
계수도 .28에서 .69의 범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
어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완성된 설문지
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이 설문지의 채점 및 점수의 사용은 두 가지 방
법으로 할 수 있다. 하나는 총점을 내어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요인별 점수를 내어 분석에 사용하
는 것이다. 총점을 낼 때에는 요인 1에서 요인 5까
지에 속하는 20 문항의 점수의 합계를 내면 된다.
이 합계는 20에서 100의 범위에 들어가게 될 것이
며,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인 6에 속하는 문항들을 총점에 포함시키
지 않는 이유는 위에서도 논의했듯이 이 문항들이
공동체의식의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이라기보
다는, 권위주의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주의 의식으로
서 특수한 종류의 공동체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총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 요인 6의 점수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나, 응답자 개인의
그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검사를 사용한 자료가 축적되면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는 오히려 총점에서 요인 6의
점수를 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요인별 점수를 내는 방법은 공동체의식을 구성
하는 요인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할 때 사용
한다. 각 요인의 점수는 그 요인에 속하는 네 개의
항목의 점수를 더한 것으로서, 4에서 20점까지의
분포가 가능하다. 둘 이상의 집단의 자료를 비교할
때는 어느 집단에서 어느 요인이 높고 어느 요인이
낮게 나타나는지를 알아 볼 수 있으며(예를 들어,
동창회에서는 요인 1과 6이 높고, 협동조합에서는
요인 3과 5가 높다는 등), 한 응답자 집단이 두 가
지 이상의 대상에 대하여 응답을 하였을 때는 어떤
대상에서 어느 요인이 높고 어느 요인이 낮게 나타
났는지를 알아 볼 수 있다(예를 들어 대학생들이

가족에 대해서는 요인 1이 높고, 학과에 대해서는
요인 2가 높다는 등).

이 검사의 이름은 '한국 공동체의식 검사(Korean
Sense of Community Scale)'로 하였다.

연구 2: 타당도 검증

연구 2에서는 위에서 작성한 '한국 공동체의식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경
험적으로 밝혀진 친밀성이 강하고 참여도가 높으
며, 자아정체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개방
성을 견지하는 바람직한 공동체로 밝혀진 집단을
선정하여, 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단체이지만 공
동체의식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과 비
교하는 방법으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방법

대상집단의 선정

이선이 등(1998)은 동창회, 향우회, 상조회, 평신
도회, 부녀회 등 전형적인 형태의 집단들과 복합공
동체 두레마을, 한 살림, 공동육아 협동조합, PC동
호회 등의 비전형적인 집단들의 심리사회적 특성
을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를 보면, 공동육아 협
동조합이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한 공동체의 특징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기존의 소속이나
인간관계를 매개로 하지 않고 가입한 사람의 비율
이 다른 집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53%), 적어
도 월 2회는 모이고 '거의 참여하지 않는' 회원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임원의 비율이 가장 낮
으면서 모든 회원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회원
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도에 대한 응답에서는 자신
의 의견이 '아주 많이' 반영된다거나 '거의 반영되
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혀 없어서, 일부 회원의 의
견이 편중되게 반영되거나 무시되는 일이 없이 골
고루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보여 주었다. 참여를 중

단하겠거나 줄이겠다는 응답자는 전혀 없었으며,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참여를 현 상태로 유지하겠다고 하였다. 열린 교육을 하는 바람직한 육아의 장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회원간의 사교도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운동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회원들도 상당 수 있었다. 공동활동이 가정생활과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다른 집단들에 비하여 가장 높았고, 실제로 가정 만족도와 직장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특징들로 볼 때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바람직한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동체의식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공동육아 협동조합과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공동체의식은 높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으로서 일반 공립, 사립 어린이집의 부모들을 택하였다. 보육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어린이집이나 일반 어린이집이 마찬가지로, 그 설립과정이나 운영과정에서의 부모 참여도는 일반 어린이집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이다.

검사실시

설문조사는 1999년 6월에 실시하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아동들이 처음 다니기 시작하는 때가 3월이 대부분이므로, 그 부모들이 그 집단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시간을 가진 후에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6월로 정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위에서 개발한 한국 공동체의식 검사와 부모의 나이, 학력, 자녀의 수 등의 인구학적 변인을 포함하였다.

조사 대상자

조사대상자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어린이집과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의 부모로서 400명을 목표로 하였다. 200 가구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응답하여 총 400명이 되는 것이다. 회수율

이 약 3분의 2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여, 공동육아 협동조합에 약 300부, 일반 어린이집에 약 300부를 배부하였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많아 30 가구 남짓이고 15 가구 정도인 곳도 많아서 열 군대를 표집하였고, 일반 어린이집은 공립과 사립 한 곳씩을 표집하였다.

설문지는 예상했던 대로 200부 정도가 회수되었는데, 그 중에 응답이 많이 누락된 것을 제외하고 나서, 총 35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어머니 185명, 아버지 167명).

결과 및 논의: 타당도 확인 및 민주적 공동체의 특징에 대한 탐색

우선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일반 어린이집의 부모들 사이에 공동체의식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간에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부모들이 공동체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검증의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는 예상했던 바대로 일반 어린이집의 부모들에 비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공동의 이념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어린이집을 설립하여 공동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부모들이 자신들이 소속한 어린이집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공동체의식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려운 조합준비 과정을 거치고 어린이집을 설립하여 이를 책임지고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동체의식이 높아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애초에 공동체에의 책임있는 참여에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공동체의식을 비교한 결과, 어머니는 83.4, 아버지는 76.8로 어머니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육아와 일반 어린이집의 집단 분류와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높은 공동체의식을 보이는 것도 예

상했던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시간을 그와 관련하여 지내며, 다른 부모나 교사 등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한 느낌이 좀 더 공동체적일 것이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아버지들의 경우, 일반 어린이집의 아버지들이 어린이집에 거의 가는 적이 없는 것에 비하여, 협동조합의 일에 많이 참여하고 어린이집의 보수공사나 집 단장 등에 주말을 바치기도 하는 등 상대적으로 참여가 높기 때문에 혹시 상호작용 효과가 날지도 모른다고 예상하였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부모들이 어머니나 아버지나 일반 어린이집의 부모들에 비하여 공동체의식이 높은 정도가 비슷하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 어머니들도 공동체의식이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의 차이가 주로 어떤 요인, 즉 공동체의식이라는 구성개념의 어떤 부분에 기인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마다 각각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공동체의식 검사 총점 및 각 요인점수의 t-검증 결과

	평균		t	유의확률
	공동육아	일반 어린이집		
총점	82.00	77.71	3.40	.001
요인 1	16.02	14.91	3.23	.001
요인 2	18.06	18.05	.06	.955
요인 3	16.57	14.53	5.99	.000
요인 4	14.88	14.45	1.35	.179
요인 5	16.49	15.83	2.30	.022
요인 6	10.37	10.79	-1.41	.160

N=351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부모들과 일반 어린이집의 부모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요인들은 1, 3, 5였다. 그 요인들은 1 - 친밀성과 소속감, 3 - 자발적 참여 및 의사표현, 5 - 자율성과 공공의식이었고, 별 차이를 보이지 않은 요인들은 2 - 조화와 단결, 4 - 동일시와 공과의 공유였다. 친밀성과 소속감이 높은 것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부모들이 같은 이념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의 일로 훨씬 더 많이 만나고 시간을 같이 보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없던 조직을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협의해 나가면서 이를 운영하면서 자발적인 참여와 의사표현의 특징을 보이고, 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결정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율성과 공공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민주적인 공동체의 운영에 필요한 적극적인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두 집단 간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은 두 요인들은 구성원들 간에 조화와 단결을 추구하고 집단과 동일시하는 것으로서 주로 심정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부모들의 특징은 민주적인 공동체를 결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발성, 자율성, 적극성, 공공성 등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공동체의식검사의 총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그 집단의 공동체의식의 특성을 알아보는데 필요한 요인 6에서는 모든 요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부모들이 약간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이다. 그 차이는 통계적 유의도에 약간 미치지 못했지만 ($p < .135$), 이 요인이 권위적, 배타적 집단주의를 나타내는 요인인 것을 감안하면, 이 결과는 사사해주는 점이 있다. 즉,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부모들이 보이는 공동체의식은 집단주의적이기보다는 개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이상의 결과는 공동체의식 검사가 목표하는 바를 대체로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검

사 총점이 두 집단간에 예측했던 대로 차이를 나타냈고 요인점수에서도 몇 가지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검사의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이는 위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구인타당도와 함께 이 검사의 사용가치를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검사는 문항 선정을 위하여 행한 연구에서 응답자가 대학생들로 한정되어 다양한 사회집단을 반영하지 못한 점과 응답자의 수가 검사개발을 위한 연구로서는 부족한 편이라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앞으로 검사의 사용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집단들에게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하다면 문항을 수정, 보완해 나가고, 한편으로는 공동체의식과 다른 변인들과의 이론적 관계를 확립하여 타당도를 더욱 확보해 나가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완석 · 김영진(1997). 주관적 안녕 척도: 공동생활 및 활동과의 연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 1, 61-82.
- 김혜숙 · 김연진 · 김완석 · 나은영 · 이종한 · 조성을 · 최진호(1997). 한국인의 공동생활 및 활동과 주관적 안녕감: 통합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 1, 83-96.
- 나은영 · 김혜숙(1997). 한국의 가족 및 혈연 공동생활과 삶의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 1, 3-17.
- 이기범(1997). 공동체주의 철학과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 한국교육의 윤리적 과제. *한국 민족학회. 민족학연구*, 2, 2, 135-166.
- 이선이 · 김혜숙 · 김영진 · 김완석 · 나은영 · 이종한 · 조성을(1998). 공동활동 집단의 심리사회적 특징: 양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 1, 157-176.
- 이종한(1992). 공동체 의식에 관한 개인주의-집단주의 관점에서의 비교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 2, 76-93.
- 이종한(1994). 연고주의가 한국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안의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 1, 83-94.
- 이종한 · 김혜숙(1997). 한국인의 지역공동생활과 주관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 1, 19-40.
- 이종한 · 김혜숙 · 김영진 · 김완석 · 나은영 · 이선이 · 조성을(1998). 공동활동 집단의 심리사회적 특징: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 1, 137-156.
- Allen, M. J., & Yen, W. M. (1979). *Introduction to measurement theory*. Monterey, Calif.: Brooks-Cole.
- Hillery, G. A. (1955). Definition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118.
- McIntyre, A. (1981). *After virtue*.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McMillan & Chavis (1986).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4.
- Sandel, M. (1984). The procedural republic and the unencumbered self. *Political Theory*, 12, 1, 81-96.
- Taylor, C. (1992).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Edited by A. Gutman, 25-73.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riandis, H. C., Bontempo, R., Leung, K., & Hui, C. H. (1990). A method for determining cultural, societal and personal construc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1, 302-318.

〈부록 1〉 공동체의식 검사

이 설문지는 _____ 와 그 구성원들에 대하여 귀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느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아래의 척도를 참고하여 () 안에 적어 주십시오.

1	2	3	4	5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1. 나는 그 집단 속에서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느낀다.
- () 2. 그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 () 3. 그 집단에서 갖는 모임은 꼭 참석한다.
- () 4. 그들이 저지른 잘못이 마치 나의 책임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
- () 5. 우리의 공공 기물을 내 것처럼 소중히 다룬다.
- () 6. 그 집단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면 옳건 그르건 편을 들어준다.
- () 7. 나는 그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 () 8. 나의 행동이 그 집단에 해가 된다면 기꺼이 나의 행동을 고친다.
- () 9. 그 집단의 일에는 자발적으로 협동한다.
- () 10. 그들이 잘 하면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기쁘다.
- () 11. 그 집단의 규율을 남이 보지 않아도 스스로 지킨다.
- () 12. 그 집단이 아닌 사람은 믿기 어렵다.
- () 13. 그 집단의 구성원들과 친밀감을 느낀다.
- () 14.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그 집단을 발전시킬 수 있다.
- () 15.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할 때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 () 16. 나를 희생할지라도 그 집단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
- () 17. 그 집단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
- () 18. 그 집단의 결정에 나는 무조건 따른다.
- () 19. 나는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 () 20. 그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행동은 조심한다.
- () 21. 그 집단의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 () 22. 그들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내 일처럼 돕는다.
- () 23. 나는 그 집단에서 나의 일을 스스로 해나간다.
- () 24. 연장자와 의견이 다를 때 그의 의견을 그대로 따른다.

Korean Sense of Community Scale

Jean-Kyung Chu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describes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Korean Sense of Community Scale', and the exploration of the structure of 'sense of community'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In order to establish the theoretical concept of the sense of community, and to define the psychological areas that need to be measured, a literature review was done on three domains, the discussion on the philosophy of community, the psychological studies on the sense of community, and the empirical research on the community lif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Korea. In the process, a special attention was given to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ense of community and authoritarian collectivism. Study 1 carried out an analysis of the sense of community in contemporary Korea empirically, and developed a sense of community scale based upon it. Item analyses of the pilot items revealed the major factors constructing the sense of community, and helped to select the items for the scale. The scale made of 24 items was found to have the reliability coefficient of .92. Study 2 was done to test the validity of the scale. The members of the 'Cooperative Childcare' which was found to be a very well-functioning community in a previous study were compared with the members of a more ordinary and not very close-knit day care facilities. As predicted, the 'Cooperative Childcar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ly higher sense of community establishing the validity of the new scale.